

# 전남 쌀 5년만에 풍년...“쌀값 떨어질라” 농민은 속탄다

### 기상 여건 호조에 올해 77만2364t 예상...전년비 12.3% 늘어나 쌀값 20만원대 진입 1년 “과잉 몰량 28만t 선제적 시장 격리를”

5년 연속 감소 추세였던 전남 쌀 생산량이 올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농민들은 쌀 생산량 증가로 모처럼 만의 쌀값 인상이 허사가 되지 않을 지 우려하고 있다.

통계청 지난 8일 발표한 ‘2021년 쌀 예상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남에서는 전년보다 12.3%(8만4552t) 증가한 77만2364t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증가는 2016년 이후 5년 만에이며,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것은 지난 2013년(17.5%)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전남 쌀 생산량은 지난 2015년 86만6202t 이후 2017년 84만6236t→2018년 76만6022t→2019년 72만5094t→2020년 68만6812t 등으로 5년 연속 감소해왔다. 특히 지난해는 1970년(63만7030t) 이후 50년 만에 최저 생산량을 기록한 해였다.

기상 여건 호조로 전국 생산량도 382만7000t으로 지난해보다 9.1%(32만422t) 증가할 전망이다.

통계청은 벼 낱알이 형성되는 시기인 지난 7~8월 일조시간이 늘고 평균기온이 오르는 등 기상 여건이 좋아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강수량도 적절했다.

올해 10a(아르=100㎡)당 생산량은 522kg으로 긴 장마와 태풍의 영향을 받았던 지난해보다 8.2% 늘었다.

벼 재배면적도 73만2477ha(헥타르=1만㎡)로 지난해보다 0.8% 늘었다. 쌀 가격 상승세와 정부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종료가 영향을 미쳤다.

전남 재배면적은 15만6000ha에서 올해 15만

5000ha로, 0.5%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10a당 생산량은 441kg에서 497kg으로 12.9%나 늘었다.

시도별 쌀 예상 생산량은 전남이 전체의 20.2%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75만2000t), 전북(59만9000t) 등 순이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정곡·80kg)은 22만 2712원으로, 조사를 벌인 2013년 7월 이래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처음 20만원을 넘긴 지난해 10월보다 3.6%(7924원) 올랐다.

김선호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은 “수확기 들어 해남·영암 등지를 중심으로 벼 병해충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쌀 생산량 통계의 정확도가 의심된다”며 “병해충 피해가 전남지역 주요 벼 품종인 신동진에 집중되어 있기에 지자체와 통계청은 생산량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정부 재고미를 방출하는 것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 50%가 무너진 상황에서 식량 안보에 대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공공비축미를 확충하고 인위적인 쌀값 조정은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지난달 말 “2021년산 쌀 공급과잉 예상 몰량 시장격리 등 특별대책 건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쌀값 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시장격리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남도는 “2021년산 쌀 과잉몰량은 약 28만t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농업·농촌이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통해 국가경제와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과잉몰량의 신속한 시장격리 등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



지난 8일 고흥군 도덕면 오마리에서 열린 ‘마늘파종 기계화 현장 연사회’에서 박서홍(맨 오른쪽) 농협 전남본부장 등이 기계식 파종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 “노동력 96% 절감” 마늘파종기 적극 도입

### 비닐 덮고 씨앗 심기 자율주행...농협 전남본부, 고흥서 연사회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마늘 농가를 위해 노동력의 96%를 절감할 수 있는 기계식 파종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전남농협은 지난 8일 고흥군 도덕면 오마리에서 농동농협 소속 농업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늘파종 기계화 현장 연사회’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마늘 생산비 절감과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 선보인 파종 기계는 자율주행을 하면서 토양 표면을 비닐로 덮어주고 씨앗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심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토지 10a(1000㎡)에 파종을 하는 데 24.8시간이 들어갔지만, 기계식 파종을 하면 1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전남농협은 기존보다 노동력을 96%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남 2만여 마늘 농가는 전국 재배면적의

17.8%를 차지하는 3917ha에서 마늘을 키워냈다.

올 생산량은 4만7750t으로, 전국(30만8532t)의 15.5% 정도였다. 10a당 생산량은 전국 평균(1402kg)보다 183kg 적은 1219kg으로 집계됐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인력부족 문제가 해결되고 노동력 감소와 인건비 절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농가 인식 개선 및 관행적 인력파종 작업을 기계화 파종으로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달걀 한 판 6000원대 진입 ‘완만한 하향’

### 정부, 도매시장 연내 시범 도입 “가격 결정구조 개선”

달걀(특란 30개) 값이 추석 직후 6000원대로 떨어지면서 완만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정부는 달걀 가격 안정을 위해선 도매시장을 만드는 구조 개편 방안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근 고공행진 중인 달걀 가격을 하향 안정화하는 차원에서 도매시장을 시범 운영해보기로 했다.

이 차관은 “도매시장이 없어 생산자와 유통자가 일대 일로 가격을 결정하는 계란 가격 결정구조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고자 연내 공판장(도매시장) 2곳을 시범 운영해보고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지역 특란 30개 한 판 가격은 추석 전까지

7000원대 초반을 이어가다가 추석 직후인 지난달 23일 6930원으로 ‘6000원대’에 진입했다.

이달 8일 기준 달걀 값은 6500원으로, 2주 전보다 6.2%(-430원) 하락했고, 지난달 초순보다는 12.2%(-900원) 내렸다.

지역 축산업계 담당자는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달걀 도매시장은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전해졌다”며 “도매시장 시범운영이 전남지역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월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고하고 적극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차관은 이어 “유유 가격 인상에 따른 가공식품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편승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aT ‘글로벌 식품유통 온라인 플랫폼 현황’ 보고서 무료 공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식품 주요 수출국의 시장 현황과 온라인 플랫폼을 소개하는 ‘글로벌 식품유통 온라인 플랫폼 현황’ 보고서를 농식품수출정보(KATI) 사이트를 통해 무료 공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식품시장 현황과 주요 플랫폼 현황이 담겼다.

공사 해외 조직망을 통해 수집한 해외 각국의

등 12개 주요 수출국의 코로나 이후 온라인 식품 시장 현황과 주요 온라인플랫폼을 소개한다.

주요 온라인 플랫폼 중 식품유통 관련 채널 안내와 진출 방법 등을 제시하고, 주요 온라인 식품 시장의 특징과 소비 트렌드까지 온라인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수록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식품구매 통로는 크게 구매대행, 식품 전문, 종합 플랫폼으로 나뉜다.

지난해 기준 ‘쉽트’(Shipt)나 ‘인스타카트’(Instacart)와 같은 구매대행 플랫폼이 시장점유

율 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종합 플랫폼인 ‘아마존’이 23%, 식품 소매업체 웹사이트 23%를 차지하고 있다. ‘인스타카트’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온라인 쇼핑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식품점들을 지원해 미국 최대 식품 배달업체로 자리 잡았다.

미국 외에도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온라인을 통한 구매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유통망 또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m<sup>2</sup>
- 건 물 : 411 m<sup>2</sup>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495,000,000원

상담 010-3733-3933